



5면

후백제-조선왕조 역사골격 조성 본격화

# 전주매일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음 9월 16일) 제311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지방시대 열어가는데 지역에서부터 앞장설 것”

김관영 도지사,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지역대학 생존 위한 유연·적극 대응 제안  
대·중견기업 기업상속세 지방이전 연계 방안도  
尹 대통령에 “차기 회의는 전북서 개최” 건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올해 1월 13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지방 정책 관련 국가의제를 정책적으로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지난 1월 이후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지사 및 지방대 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지방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지방협의회) 회장 그리고 국무총리 및 기재부·행안부·고용부 등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및 사회수

석 등이 참석했다. 협력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등을 보고 받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대학 생존을 위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신입생이 적은 상황에서 재학생 중 소수의 불법체류자 발생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는 불합리성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징벌적 평가보다는 국적별 분

리평가나 모집 단위별 평가 등으로 불법체류율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평가지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업상속세를 지방이전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계열사 포함)과 매출액 4,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의 기업 상속시 분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상속세가 공제 가능토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맛과 멋이 있는 전북에서 개최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간 소통·협력·공존의 자리로 거듭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지역에서부터 앞장서 제도를 개선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2022년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가 8일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등 내빈과 많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윤점용 세계사에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사진 왼쪽부터), 서거석 교육감,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이 특본체함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 10월 9일 '한글날' ...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사람·하늘·땅의 마음 담다'

훈민정음 반포 576돌 맞아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서  
초등생 대상 '도전! 우리말' 등 문화행사 진행  
한글서예 퍼포먼스 등 축하공연·체험행사도 다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훈민정음 반포 576돌을 맞아 올해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 사람과 하늘과 땅의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2022년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 행사를 열었다. 2022년 도민과 함께하는 한글큰잔치가 지난 8일,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 교육감,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 등 내빈과 많은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한글, 사람과 하늘과 땅의 마음을 담다라는 주제로 한글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르고 아름다

운 언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전! 우리말'과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실력을 겨루는 '도전! 우리말'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도전! 우리말'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말 상식과 전북지역의 역사·인물 관련 문제를 풀면서 국어 능력과 전북에 대한 애郷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

회는 예선을 거쳐 총 10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주제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됐다.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 한글서예 퍼포먼스, 전주대 태권도시범단 등의 축하공연과 '손글씨 액자 만들기', '1년 후 나에게 쓰는 편지'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한국어와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글날을 맞이해 많은 도민들이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내년에는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더욱 뜻깊게 보여줄 수 있는 문자 엑스포 행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 선수들, 체전서 메달사냥 '순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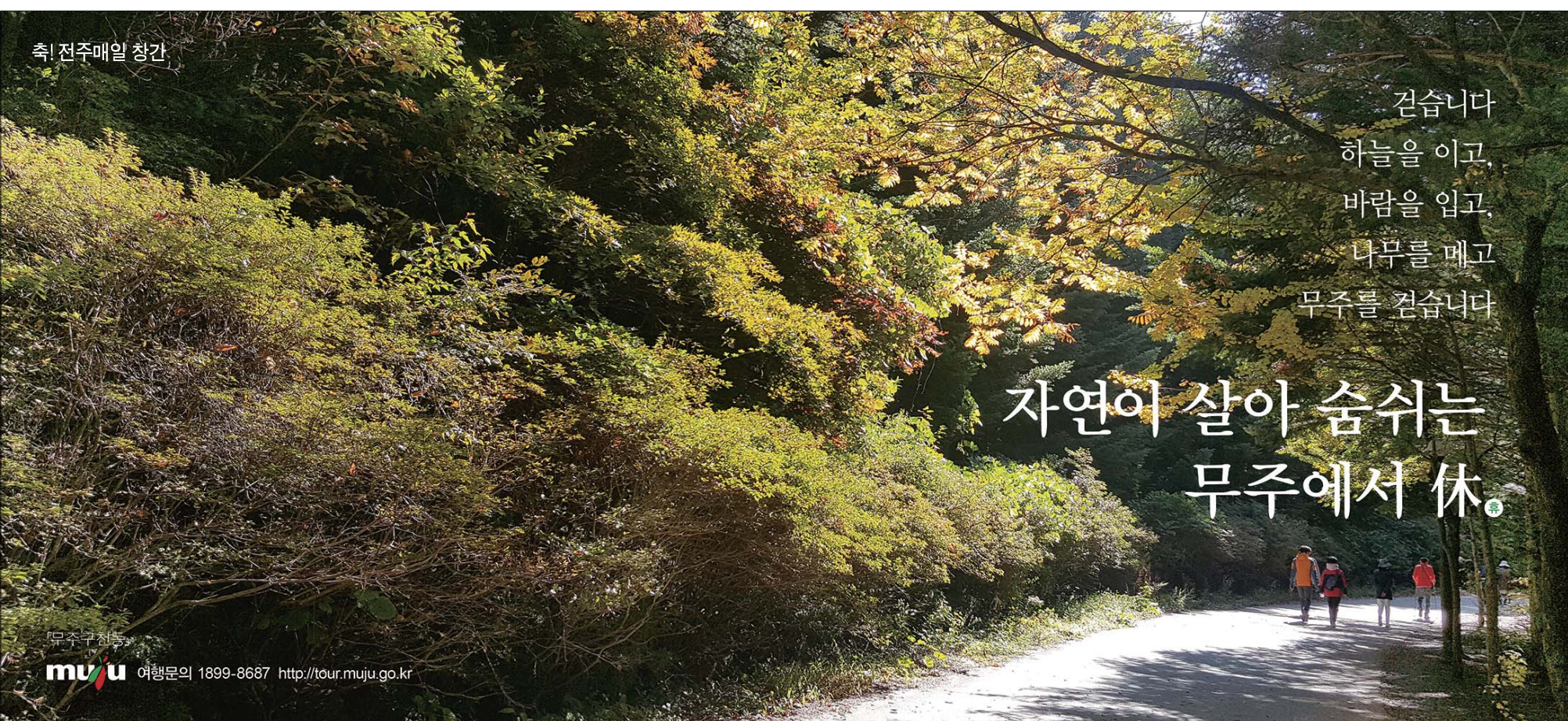
10일 현재 금 22개 등 총 89개 획득  
펜싱 권영준·체조 이상욱 등 2관왕  
철인3종, 사상 첫 종합순위 1위 기염

철인3종 종목에서는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사상 첫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강선 회장은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며 "대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투혼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전북 선수단 격려 만찬장에는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등이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전북 선수단의 메달 사냥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10일 현재 금메달 22개, 은메달 25개, 동메달 42개 등 총 8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펜싱의 권영준(익산시청)과 배드민턴의 박희영·장병찬(원광대), 산악 이도현(전북협회), 체조 이상욱(전북도청)은 2관왕을 차지했고 수영의 한

다경(전북체육회)과 육상 김지은(전북개발공사), 철인3종(정해협) 등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양궁 박진영(전북도청), 레슬링 이종선(전북체고), 바둑 김민지(전북협회), 육상 김태희(이리공고), 롤러 스포츠(전북체육회) 등도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유도와 역도 자전거, 태권도, 씨름, 카누, 소프트테니스 근대5종 등의 종목에서도 값진 은메달과 동메달이 쏟아졌다.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 주세요.



축! 전주매일 창간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